
		<h2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2>	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광역시 </div>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3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	아동청소년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보호팀장 권윤선 ☎440-3491 • 담당자 김용훈 ☎440-3492 	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박남춘 시장, 아동 학대 근절 특단의 대책 마련 지시
- 전문가 의견 종합해 제도 개선 및 방지대책 마련 주문 -

- 인천시가 아동 학대와 관련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.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3월 3일 오전 열린 복지분야 현안회의에서 박남춘 시장이 아동 학대사건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긴급 지시는 지난 2일 중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 차원의 신속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.
- 박남춘 시장은 이 자리에서 “아동 학대와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기 듣는 게 중요하다”면서 “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대책을 세워 달라”고 주문했다.

- 이에 따라 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,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.
- 한편, 2일 밤 중구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사건이 발생해 사망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. 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해당 아동의 가족들은 타 지역에서 살다가 지난 2018년 인천으로 이사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, 인천에서 거주하는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